



노동형 목사
(충청로공동체)

2024년 추석 감사예배 및 추모예배

가 · 정 · 예 · 배

가정예배 지침

1)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헌법 <예배와 예식> 편에서 “우리나라의 민족이 오랫동안 지켜 온 명절과 국경일 등은 우리의 교회가 깊은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맞는 예배의 계획과 설교의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온누리교회는 절기에 맞는 예배 자료를 성도에게 공유하는 것입니다.

2) 추모예배는 죽은 자를 예배하는 제사와는 완전히 다른 예식이며, 죽은 자를 추억하며 슬퍼하는 추모예배와도 다릅니다. 사랑했던 가족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억하며, 한

영혼을 사랑하여 구원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믿음을 지켜 죽은 자를 경배하는 제사상에 절하는 것을 삼가야 합니다. 향이나 촛불을 켜지 않으며, 지방을 쓰거나 음식상을 차려 놓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랑했던 가족의 사진을 놓고 그리워하며 생전의 좋은 추억들을 나누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3) 추석 감사예배의 경우 가족들이 둘러앉아 예배를 드리고, 예배 후 함께 식사를 나누는 뒤 검소한 선물들과 함께 가족별 장기자랑을 하거나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가 작은 사랑을 실천한다면 보다 더 의미 있는 명절이 될 것입니다.

감사예배순서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같이
찬송	나 무엇과도 주님을(경배와 찬양 40장).....	다같이
기도		가족 중에서
성경봉독	요한일서 5:4~8.....	가족 중에서
설교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내는 참된 예배자.....	설교자
감사와 기도제목 나누기.....		다같이
(돌아가면서 서로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기도제목을 나눈다.)		
중보기도		다같이
찬송	주 믿는 사람 일어나(새찬송가 357장, 통일 397장).....	다같이
주기도문		다같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내는 참된 예배자

들어가는 말

우리는 ‘승리’라는 단어를 좋아합니다. 하

지만 그 ‘승리’는 항상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며 항상 승리할 수 있을까요? 찬송가와 성경 안에는 승리에 대한 고백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에는 한가지 공

통점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승리이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허락하신 때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사용하여 승리와 자유를 누립니다

세상 속에서 성도를 힘들게 하는 것은 거짓으로 속고 속이는 것, 죄와 악이 분별없이 남용되는 것을 내버려 두는 것, 그리고 생명을 이겨낼 수 없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절망하고 주저앉아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승리’가 허락되어 있습니다. 의심 없이 믿을 때 ‘하나님의 승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불안해 하지 말고 온전히 믿을 때, 우리는 진리로 모든 것을 이겨내신(요 16:33) 예수님과 함께 동거하게 되고, 모든 것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는 우리를 얹어매고 힘들게 하며, 대적하는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십니다(요 8:32).

믿음을 사용하여 구원의 은혜를 누립니다

베드로와 바울처럼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임재하심을 믿고 있습니다(마 16:16, 롬 10:10).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기에 살아 숨쉬고 있는 우리들과 함께 해주시고 만나주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 만남은 구원의 은혜로 우리를 친절하게 인도해줍니다.

나아가 이러한 믿음의 사실을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진실한 기쁨과 감동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는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마 9:1-8, 막 7:35-37, 롬 8:37). 그리고 감사함으로 찬양하는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사용하여 예배자의 삶을 누립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고 싶어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참된 예배자를 찾으십니다(요 4:23-24).

예배의 시작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간절한 소망’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간절함을 하나님 앞에서 드러내야 하며, 세상 속에서는 우리의 믿음을 담대하게 증거해야 합니다.

나아가 예배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예배로의 초청을 믿음’을 전제로 시작됩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초청을 확인할 때, 우리는 전심을 다해 기쁨으로 응답하며, 기록하고 정결한 예배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처럼 왕의 잔치에 초청되었으나 거절하여 참여하지 못하거나 준비된 예복을 입지 않아 잔치의 자리에서 쫓겨나는 비극이 없게 되길 소망합니다(마 22:1-14).

나가는 말

2024년 추석을 맞으며 우리는 ‘믿음의 가족’이라는 꿈을 꾸게 되길 소망하고, 그 꿈이 구체적인 목표로 정해지는 ‘믿음의 비전’으로 이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신뢰하며, 오직 예수님만이 인류의 그리스도이심을 의심없이 믿으며,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동거하심을 통해 우리가 선물로 주신 믿음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의 자유를 통해 얻게 되는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고 나누기를, 그래서 남은 인생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내는 참된 예배자의 삶을 누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추 · 모 · 예 · 배

추모예배순서

오늘 우리는 고(故) 000님을 추모하며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 영과 진리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묵도	시편 121:1~8.....	다같이
찬송	비둘기 같이 온유한(찬 187장).....	다같이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같이
대표기도		가족 중에서
성경봉독	빌립보서 2:5, 마태복음 11:28~30.....	가족 중에서
설교	남은 인생동안 온유한 예수님의 마음 품고 사세요.....	설교자
찬송	온유한 주님의 음성(찬 529장).....	다같이
추모하는 이야기		다같이
(사랑했던 가족을 기억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좋은 추억들을 나눈다.)		
주기도문		다같이

남은 인생 동안 온유한 예수님의 마음 품고 사세요

들어가는 말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온유한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통해 한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온유함으로 변화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봅시다.

하나님 마음을 직접 만난 예언자 요나

요나는 부드럽지 못한 마음 때문에 원수 앓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상황에 화가 났습니다. 이스라엘 뿐만 아니라 온 세상과 모든 인류의 구원자이신 하나님께 거친 생각과 모난 말투로 성질을 부리고 말았습니다. 구원자 하나님께서는 그런 요나를 풍랑이 이는 바다 속에 빠지게 하시고 큰 물고기 뱃속에 삼켜지게 하심으로 ‘나는 너를 사

랑하기에 죽음으로부터 너를 구원하려고 존재하는 하나님이다’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요나의 사건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 뿐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 마음 받아들여 형제를 용서한 요셉

<창세기> 37장에서 요셉에 대한 형들의 시기와 인신매매, 거짓과 심적 살인의 현장을 목격하게 됩니다. 요셉은 오랜 세월 타향 살이하며, 타민족의 노예가 되고, 감옥에 갇힌 억울한 죄인이 되는 고통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형제들은 자신들이 행한 죄악과 거짓말로 인해 하나님 앞에서 두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형제들에게 ‘두려워하지 마소서’라고 말하며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선포했습니다(창 50:15-21). 요셉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있었고, ‘온유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온유한 사람으로 인정받은 모세

하나님은 모세를 가장 온유한 사람으로 평가하셨습니다(민 12:3). 모세는 이스라엘에서 태어났지만 나일강

에 버려졌고, 40세까지는 이집트 궁전에서 살았지만 살인자가 되어 도망자로 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세는 다시 이집트로 돌아와 구원이 필요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했습니다(히 11:24-26).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많은 불평과 절망이 있었지만, 모세의 반응은 한결같았습니다. 백성들을 위해 기도해 주었고, 희생해 주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태도도 모세와 같아야 합니다. ‘온유한 마음’은 높이 있거나 높아질 수 있으면서도 타인을 위해 희생할 수 있고 비천해질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나가는 말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들에 대해 부드럽고 정다운 사람이며, 하나님을 만난 확신 속에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나눌 줄 아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온유한 사람이 땅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마 5:5). 온유한 사람이 받을 땅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남은 인생에 예수님의 온유한 마음을 품고 날마다 누리고 나누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